

연속 심포지엄에 초청합니다.

지금까지 교회와 신학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볼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관점에서 인간에게 특별한 위상과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위기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인간에게만 국한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지구 생태계를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구 생태계를 통해 인간을 돌보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교회와 신학은 지금까지의 인간중심의 이해를 반성하고 올바른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우주와 지구 속의 인간 이해, 인간 아닌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 속에 새로운 인간 이해를 전개해야 합니다. 관계, 공존, 공산, 희생당하는 존재의 잠재성에 집중해야 할 위기의 때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과제를 가지고 연속심포지엄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후 위기와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 시대의 새로운 인간의 이해를 위한 여정에 많은 분이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
크리스찬아카데미 채수일 이사장
한신대학교 종교와과학센터 전철 센터장

• 목적

기후 위기와 기술 시대에 창조 세계 안의 '새로운 인간의 이해'를 제안하기 위해 아래의 문제를 논의하려고 한다.

- 1) 우주와 지구 속의 인간, 인간과 동료 피조물(미생물, 동물 등)의 관계성
- 2) 인간과 기술의 관계, 종교의 기원
- 3) 포스트/트랜스휴머니즘과 인간, 인류세와 기후 위기 속의 새로운 인간관

• 장소와 일정

- 1) 장소: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조예홀(심포지엄) & 평창동 대화의 집(특별프로그램)
- 2) 일정

		일정	심포지엄 주제
시 즌 I	1	2024년 3월 5일(화) 오후 7~9시	창조 세계 안의 인간의 위상과 역할
	2	2024년 4월 2일(화) 오후 7~9시	지구 속의 인간
	3	2024년 5월 7일(화) 오후 7~9시	인간과 곰팡이, 동물
	4	2024년 6월 4일(화) 오후 7~9시	인간과 기술
2024년 7월 2일(화) 특별프로그램 (만남과 대화의 장)			
시 즌 II	5	2024년 9월 3일(화) 오후 7~9시	뇌과학으로 본 종교의 기원
	6	2024년 10월 1일(화) 오후 7~9시	트랜스/포스트휴머니즘
	7	2024년 11월 5일(화) 오후 7~9시	인류세와 기후 위기 속의 인간

- 3) 심포지엄 진행 방식: 과학자 30분 주제 강연 / 신학자 30분 주제 강연 / 논찬(신학위원) 10분 / 질문 및 토론 (과학자, 신학자, 목회자, 일반인) 30분

• 첨부: NCKK-크리스찬아카데미 공동기획 연속심포지엄 안내

- 공동주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K), 크리스찬아카데미 / 협력: 한신대학교종교와과학센터(CRS)

